

# 인터넷 활용이 효용성 인지 및 부정적 인지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조사업체 패널의 기혼자 집단을 중심으로 -

An Effect of Internet Usage on the Awareness of Utility and Negativeness

- Focusing on the On-Line Panel of Married Men and Women -

대전대학교 아동벤처산업학과  
부교수 차성란

Dept. of Venture Business for Children, Daejeon Univ.

Associate Professor : Cha, Sung-Lan

## ◀ 목 차 ▶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문제 및 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As the information society matures, an analysis on possible outputs of internet usage is needed. Thus,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utility cognition and negative outputs of internet user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a web-based questionnaire that was administered to the internet users. Five hundred married men and women were analyzed with a factor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any kinds of internet usages - information searching, internet shopping, electronic mail, instant messaging, and decision-making dependent on internet information - were differentiated with age. Second, the attitude about the internet was an important explanatory variable in the types of internet usage. Third, negative outputs of internet usage were great in terms of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and unbalanced scheduling in daily time spent. Fourth, utility cognition was affected by qualitative elements on internet usage more than the quantitative ones.

**주제어(Key Words):** 인터넷(internet), 효용성(utility), 부정적(negativeness)

## I. 서론

우리 나라는 2002년 6월 현재 6세 이상 전인구의 58.0%인 2,565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인터넷을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자의 96.0%(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2)로 나타나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이 각자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생겨나는 요구들을 인터넷을 이용해 해결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편입되면서 이용에 따른 이점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력의 결과도 부각되고 있다. 미처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래 정보사회의 명암에 대한 예측이 구체적인 현실로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인터넷 쇼핑을 이용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구입이 가능하며,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음으로써 가사노동 해결의 시간적 융통성 및 시간단축 등 인터넷 활용으로 인한 편의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터넷 사용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미숙으로 신용카드번호가 누출되는 사고,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라 이와 동반하여 증가하는 소비자피해 신고(사이버소비자센터, 2003), 청소년들의 유해정보노출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나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의 폐해가 지적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변화의 속도, 기계, 기술적인 사용 미숙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 등의 상반된 문제들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혁신의 사회적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Rogers(양찬일, 1996에서 재인용)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적합성, 모험심, 성취동기, 독단성, 기존제품 및 아이디어에 대한 태도 등을 들었다. 상대적 이점을 제외한 다른 특성들은 개인의 인성적 특성에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 이점은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편리함, 만족감 등의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인터넷 활용이 상대적 이점, 즉 편리함과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정에서의 인터넷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정보자원, 기술적 자원, 시간자원 등의 효율적 자원관리 차원에서 인터넷의 부정적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처, 예방,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가정관리를 통해 가족원들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정경영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같이 인터넷이 지니고 있는 상반된 특징에 대해 어느 한편을 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가정체계는 정보사회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체계균형 유지를 위한 새로운 적응기제를 요구받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기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정보사회라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 효율적인 가정경영을 위한 관리전략을 모색하려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생활도구의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영역을 살펴보면 인터넷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적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만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부족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영역으로 소비생활 영역에서의 연구들이 있다. 인터넷 쇼핑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박미석, 이유리, 2000), 전자상거래 활용에 따른 소비자만족, 불만족에 대한 연구(이동원, 1998), 정보화에 따른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신종국, 1998), 인터넷 소비자정보 요구도에 관한 연구(이수진, 이승신, 2001) 등이 포함된다.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박부진과 이해영(2000)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특성 및 가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다루었다. 김선우(2002)는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그리고 심수민(1999)은 부모의 인터넷에 대한 태도가 자녀와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밖에 가정관리 측면에서 인터넷 정보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다룬 이론적 접근(차성란, 2002), 가정생활에서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연구(이현아, 2000) 등이 보이고 있다.

외국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연구로는 종교생활 및 정서적 지지에 대해 다룬 연구(Larsen, 2001), 온

라인 상에서의 구직활동에 대한 연구(Boyce & Rainie, 2002),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활용에 대한 연구(Fox & Rainie, 2000),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연구(Fox, Rainie, Horrigan, Lenhart, Sponner, & Carter, 2000), 인터넷 활용에 적극적인 노인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연구(Fox, 2001) 등 비교적 가정생활의 여러 영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활용에 대해 소비자, 가족관계, 정보보호, 건강 및 의료 등 단일 관점에서 접근한다거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인터넷의 영향력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가정경영 측면에서 인터넷 활용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로, 인터넷 활용이 편화될 미래정보사회에서의 가정체계 유지를 위한 관리전략을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경영적 관점에서 인터넷 활용정도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에 따른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인터넷 이용에 따른 긍정적 측면으로서 사용자들의 인터넷 활용에 따른 효용성 인지와 인터넷 활용과정 및 결과로서 인지하게 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실용적 측면에서 가정경영 영역에서의 인터넷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므로써 정보사회에서의 가정체계 유지를 위한 전략적 관리방법을 모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활용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세련화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정에서의 인터넷 활용

가정의 PC보급률을 살펴보면 99년 51.8%이던 것이 2002년에는 78.6%에 이르며, PC보유 가구의 89.3%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2). 인터넷 이용자의 79.5%가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학교, 사무실, PC방 등과 비교할 때, 타 장소에서의 인터넷 사용률이 감소하고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률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비이용자의 53.4%가 가정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물리적 시설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것(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2)으로 나타나 양적인 측면에서의 통계수치 파악만으로는 인터넷 이용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인터넷 이용률은 인구대비 비율로 볼 때 정보 선진국들에 뒤쳐지지 않으며, 정보생산, 유통, 소비과정 등의 분야에서 시장경제와 개별 가정경제 생활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에 개입되어 있다. 학업과 관련된 정보검색(41.3%)을 통해 과제물을 해결하는 형태의 정보생산활동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정보검색(25.6%), 그리고 신문/뉴스/잡지, 이메일, 업무관련 동호회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보생산 및 유통과정에 참여한다. 실제 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형태의 포럼 수만 살펴보아도 2003년 3월 현재 경영/기업이 668개, 정보기술/컴퓨터가 266개, 문화생활이 262개, 경제/금융이 245개, 정책/행정분야가 107개, 인문사회/자연공학분야가 80개로 1,600여 개에 달한다(www.seri.org). 인터넷 쇼핑의 경우, 표준화된 상품으로서 인터넷 쇼핑을 선도하던 도서, 음반, 꽃 등의 상품 군이 매출순위에서 밀려나고, 잡화, 의류 등 일상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를 사이버 상에서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2).

이상의 인터넷 사용관련 추세를 살펴보면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용률에 있어 기회의 불평등 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의 PC보급률이나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면 정보사회를 선도해가는 정보화 국가에 포함시켜도 전혀 손색이 없다. 또한 이미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환경은 개별 가족원과 가정의 경영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환경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사회적 조직망, 제도, 하위문화, 문화(Bronfenbrenner, 1979, 백종화, 박성연, 2002

에서 재인용) 등의 측면에서 가정체계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요구하고 있다.

## 2. 인터넷 활용에 따른 효용성 인지

인터넷 활용에 따른 효용성과 관련하여 하겔과 암스트롱(1999)은 사람들이 사이버공간으로 모이는 것은 관심, 유대관계, 환상적 체험, 거래 등의 4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심은 개인적 취미나 기호에 관한 정보습득,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포럼에의 참여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지리적인 원근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받는 대인적 관계 유지를 통해 또한 효용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혼자, 독신자,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노인 등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유대관계를 통한 효용성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집단들이라 하겠다. 사이버스페이스 상에 제공하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즐거움과 환상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상에서의 경제활동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 인터넷 बैं킹, 사이버증권 등 시장경제활동을 위한 사이트 구축 및 이용활동 등을 통해 인터넷 활용의 잇점을 누릴 수 있다.

이현아(2001)는 사용동기라는 관점에서 인터넷의 효용성을 파악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인터넷 활용이 도구적, 여가적, 자기발전적, 정보적 동기의 4가지 효용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밝혔다. 연구결과 주부들은 자기발전적 동기가 가장 높았으며 가계관리 및 상품구매의 편의성 항목이 포함되어있는 도구적 동기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백종화와 박성연(2002)은 인터넷 활용에 따른 효용성을 자녀양육의 관점에서 사회적지지,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인터넷은 필요할 때면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사회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구적 지지는 인터넷 쇼핑, बैं킹, 증권, 예매, 예약, 이메일, 경조금 서비스 등을 통해 기능적인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인터넷은 상담이나 커뮤니티 내에서의 의견교환으로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된다. 특히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양육시 부모세대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젊은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보면 인터넷이 자녀양육의 새로운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으로서의 효용성이 클 수 있을 것이다.

김재휘와 홍정욱(2000)은 인터넷의 효용성을 즐거움, 사회적관계, 시간보내기, 정보, 편의 등의 네 개 요인으로 구조화 하였다. 그는 신문검색이 정보와 편의의 효용을 얻기 위한 이용행동인데 비해 채팅은 즐거움, 정보, 사회적 관계 추구, 시간보내기 등 복합적인 욕구충족을 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박미석과 이유리(2000)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쇼핑이라는 도구적 효용성만을 다루어 주부들이 가격의 유용성은 낮게 인지하는데 비해 쇼핑편의를 가장 유용한 특성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들을 볼 때, 연구관점에 따라 다소 상이한 접근을 하고 있으나 인터넷 활용을 통해 정보 또는 지적 호기심, 정서적 욕구, 오락, 기능 등의 네 영역에서의 효용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인터넷 활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

정보화가 속속단계로 진입하면서 여러 학자들이 인터넷 사용의 윤리, 철학 등 올바른 기술활용에 대한 사고를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인간 삶에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보진흥원에서 정보화역기능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적 영향의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유해정보,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중독, 사이버범죄, 청소년 컴퓨터 사용지도 및 부모역할 등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www.kado.or.kr).

Fox & Rainie(2002)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관련 정보를 검색, 활용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수집할

수 있는 건강관련 정보의 질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사회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가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라면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통제할 권리”라는 개념으로 접근된다(Michel Foucault, 홍성욱, 2002에서 재인용).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재정의는 그만큼 정보사회가 개인 정보를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차성란, 문숙재, 정영금, 2003에서 재인용).

Fox et al.(2000)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의 86%가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때 허락을 받도록 하는 “선택적” 프라이버시 정책을 선호하며, 사용자의 54%는 웹사이트의 추적이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기 때문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사용자들의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를 기꺼이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막연한 불안상태는 자신의 행동이 국가, 직장의 상관, 기업의 고객관리(CRM) 담당자 등에게 노출, 감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확실성’(홍성욱, 2002)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 불만족을 발생시킨다.

그 밖에도 인터넷 사용자의 28%는 모르는 사람로부터 기분 나쁜 전자메일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5%는 전자메일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7%는 직장에서 웹검색이나 전자메일을 사용하는데 따른 경고나 해고의 경험을 가진 경우도 적지 않은 응답비율을 보였다(Fox et al 2000).

인터넷 활용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 중 인터넷 중독은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가정체계유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터넷중독은 시간잠식성이 가장 문제된다. 김선우(2002)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27.6%가 초기 인터넷 중독자였으며, 특히 15~19세의 낮은 연령 집단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외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 성향을 보였다. 김기범, 김기희, 최상진(2001)의 연구에서도 고독감이 높은 사람일수

록 인터넷에서 목적없이 시간보내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2003)의 전자상거래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4,631건으로 전년대비 110%가 증가했으며, 피해 사례유형은 물품하자가 21.8%, 물품미인도 및 인도 지연이 16.3%, 계약불완전이행이 15.1%, 해약거절 12.9%, 부당대금청구가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이 충동구매를 증가시킴으로써 구매 지출을 증가시키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Horrigan(2000)의 연구에 의하면 축제기간동안의 선물구매를 인터넷에서 한 사람들의 34%가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던 선물을 구매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인터넷은 친구, 가족,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차성란 외, 2003). 그러나 가족과의 유대관계에 있어서는 심대 응답자의 64%가 인터넷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감소시켰다고 응답했으며, 부모들은 인터넷 기술이 심대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에 대해 걱정하였다(차성란 외, 2003).

#### 4. 인터넷 관련연구

##### 1) 개인·가정환경 변인

인터넷 사용자의 성별은 인터넷 태도, 실제적인 인터넷 활용에 있어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Gattiker, Perlusz & Bohmann (2000)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웹 상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적으며, 인터넷에 대한 태도가 덜 긍정적이고, 프라이버시에 대해 좀 더 관심이 크며, 의사소통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인터넷 사용 용도에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여성들은 건강정보, 종교정보, 새로운 직장구하기, 온라인 게임 등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뉴스를 찾거나, 인터넷 상에서의 상품구매, 재정관련 정보검색, 온라인 증권거래, 온라인 경매, 정부 웹사이트 방문, 스포츠뉴스 검색 등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ainie & Kobut, 2000).

연간 인터넷 쇼핑비율을 비교해보면 남성이

(49%), 여성에(45%)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지만 축제기간동안의 인터넷 쇼핑은 여성이(27%) 남성(20%)을 앞서고 있다. 이 기간동안의 충동구매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여성은 43%가 남성은 27%가 온라인상에 접속할 때 구매를 계획하지 않았던 상품을 충동구매했다고 응답했다(Horrigan, 2000). 김선우(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유의한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여성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태도, 사용시간, 사용빈도에 있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침해받기 쉬운 프라이버시의 문제, 의사소통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아 성별에 따라 효용성 인지나 부정적 인지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구매의 확률이 높으며, 전문직과 사무직, 전업주부의 구매확률이 타 직종종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남훈, 송지희, 2002). 대학졸업, 대학원졸업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인터넷 상에서의 주택정보검색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www.pewinternet.org, 2002). 글개진 형태로의 정보생산경험이나 쇼핑에서의 정보활용에서도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정숙경, 2002).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경력이 길수록 온라인 상에서의 의료정보검색을 좀 더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x et al., 2002). 교육수준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용이하도록 해 주는 변인으로 인터넷 활용의 정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가계소득이 연간 75,000불 이하인 응답자들은 직장이동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준거로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75,000불 이상인 응답자들은 새로 이사할 장소를 찾는 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Kommers & Rainie, 2002). 그러나 Boyce & Rainie(2002)의 연구에서는 반대로 고소득층이 온라인 상에서의 직업탐색과 상관관계를 보여, 75,000불 이상의 소득을 가

진 가구원들은 그보다 낮은 소득층 사람들보다 온라인 상에서의 직업탐색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수준과 함께 가계소득 변인은 사회경제적 계층을 가늠케 하는 중요 변인으로서, 구매력 소유, 다양한 생활양식 등의 추구가 가능함으로써 인터넷 활용에서의 관심을 갖는 영역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추측된다.

전업주부의 인터넷 중독성향이 전문·사무직 및 기타직의 집단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기는 했으나 통계적인 의미에서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김선우, 2002).

젊은 층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본인이나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때 인터넷을 의사결정의 준거로 삼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18-29세 연령층에서는 직장이동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다(Kommers & Rainie, 2002). Boyce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18-29세의 젊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61%가 온라인 상에서 직업을 탐색한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연령층에게 인터넷은 직업정보를 탐색하고 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는 도구로서 생활의 중요 영역에서 기여를 하고 있었다.

한편 신체적 노화가 진행되면서 건강상의 문제를 갖는 시기라 할 수 있는 50-64세 연령층에서는 질병관리를 위해 인터넷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Kommers et al., 2002), 연령은 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정과 관련하여 인터넷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2) 인터넷 사용환경 변인

인터넷 사용경력은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사용방식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용에 있어 경력차라 할 수 있는 3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해 온 사람들이 중요한 사건을 해결할 때 인터넷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의사결정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할 때, 직업적인 이유로 추가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때, 자동차 구입 등에 관한 의사결정 시 인터넷을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Kommers et al., 2002). 인터넷 경력

이 긴 사람들은 신참자들에 비해 축제일에 인터넷 상에서의 선물구매를 3배 이상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rrigan, 2000). 또한 인터넷 상에서 주택정보 검색을 하는 사람들의 62%가 3년 이상의 인터넷 숙련자들이었다. 이상에서 보면 경력이 긴 인터넷 사용자는 교육, 훈련, 자동차 구입, 취미생활, 주택정보검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경력이 짧은 신참자들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며(Fox et al., 2000), 오락적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집단에 관심을 보이는 특징이 있었다(Horrigan, 2000).

과다한 인터넷 사용으로 문제가 되는 중독현상은 특정 변인과의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세영(1999)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선우(200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사용경력 사이에는 일관된 관계의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Young(www.apa.org)의 연구에서는 의존적 집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인터넷에 중독된 행동패턴을 보였다. 또한 그는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인터넷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중년여성들이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연구로서 Jones(2003)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즐겨하는 게임을 질문한 결과, 컴퓨터 게임의 경우 여학생이 32%인데 비해 남학생이 19%였고, 인터넷 게임은 여학생이 15%, 남학생이 12%로 여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문제 및 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개인·가정환경특성, 인터넷 사용환경 특성에 따른 인터넷 활용 정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개인·가정환경특성, 인터넷 사용환경 특성 및 인터넷 활용에 따른 효용

성 인지 및 부정적 인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제 변인이 효용성 및 부정적 인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부부가정의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경영에서의 인터넷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의 동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자녀세대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활용에 따른 긍정, 부정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인터넷 사용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온라인조사업체의 패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새로운 기술의 조기채택자(early adopters)이며, 인터넷 사용 강도가 높은 집단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 경향을 파악하기에 이상적인 집단(Jones, 2003)이 될 수 있다. 단 결과 해석시 일반 가정의 기혼남녀와 비교할 때, 인터넷활용의 빈도,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온라인조사업체의 웹페이지를 통해 1일 평균 접속자 수를 감안, 2002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설문시행에 대한 고지를 하였다. 1차적으로 수집된 자료 중 부실 응답자를 제외하였으며, 기혼여성 250명, 기혼남성 250명의 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가 확보될 때까지 응답자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3차에 걸쳐 자료수집을 완료하였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문위원들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웹형식에 적합한 형태로 문항수 및 측정방법을 수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표본수는 기혼여성 250명, 기혼남성 250명으로 총 500명이었다.

##### 2) 측정도구

###### (1)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

응답자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계소득, 직업에

대해 응답토록 하였다.

### (2) 인터넷 사용환경 변인

인터넷 사용환경 변인에서는 컴퓨터 총사용시간, 인터넷 사용기간, 사용빈도,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환경에 대한 인지, 인터넷에 대한 태도, 본인의 인터넷 사용량에 대한 인지 등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컴퓨터 총사용시간은 '1시간 미만'의 1점에서부터 '6시간 이상'의 6점에 이르는 6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인터넷 사용기간은 개월수로 측정하였다. 인터넷 사용빈도는 '한달에 1-2번이하'에서부터 '하루 한번이상'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은 '거의 초보수준이다'의 1점에서부터 '거의 프로에 가깝다'에 4점을 주었다.

가정의 인터넷 사용환경에 대한 인지는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시 느끼는 기계·기술적인 측면, 다른 가족원과의 경쟁적 사용상태 등에 관한 주관적 평가를 3점 척도로 측정하여 세문항의 합산점수를 사용하였다. 인터넷에 대한 태도는 인터넷 이용시 느끼는 즐거움, 편리성, 적응성, 복잡성의 측면에 대해 각각 3점 척도로 질문하여 점수를 합하였다. 응답자 본인의 인터넷 사용량에 대한 인지는 '적음'의 1점에서부터 '과다함'에 이르는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 인터넷 활용

인터넷 활용은 정보검색, 인터넷 쇼핑, 메일·메신저·채팅, 의사결정시 인터넷 활용정도, 인터넷을 활용한 가사노동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인터넷 활용은 정보검색의 경우 12개 항목에 대해 '자주 검색', '가끔 검색', '거의 검색하지 않음'의 3점 척도로 질문, 합산점수를 정보검색정도로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터넷 쇼핑은 인터넷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정도를 '자주', '가끔', '거의 구입안함'의 3점 척도로 측정, 합산하였다.

메일, 메신저, 채팅 이용은 동거자녀, 비동거자녀, 배우자, 친족 등과 얼마나 해당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지 3점 척도로 측정, 합산하였다.

의사결정시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도는 가정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할 때 인터넷 정보를

어느 정도 참고하는지 12개 항목의 의사결정 내용에 대해 '상당히 참고하였음'에서 '거의 참고하지 않았음'에 이르는 3점 척도로 측정, 합산하였다.

인터넷을 활용한 가사노동은 주부 이외의 가족원이나 남편이 인터넷 बैं킹, 인터넷 쇼핑 등을 도와주는지 5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예'에 1점, '아니오'에 0점을 주어 합산하였다.

### (4) 효용성 인지 및 부정적 인지

효용성 인지는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가정관리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효용성 정도를 16개 항목의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그렇다'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효용성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측정문항의 신뢰도는  $\text{Alpha} = 0.9092$ 였다.

인터넷 활용에 따른 부정적 인지는 가정체계의 시간, 금전자원 사용에서의 문제점, 가족관계에서 발생가능한 심리적, 정서적 인지상태 등 17개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그렇다'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측정문항의 신뢰도는  $\text{Alpha} = 0.8417$ 이었다.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초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인터넷 활용정도의 차이, 효용성 및 부정적인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추후검증으로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인터넷 활용에 따른 효용성 인지 및 부정적인지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많아 43.6%였으며, 40대가 33.2%, 50대 19.4%, 20대 3.8%의 순이었다. 기혼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20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은 사무직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주부가 30.2%였다. 육체노동직 비율은 9.8%, 무직/기타의 비율이 8.0%였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5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30.4%, 대학원졸업이상이 12.2%였다. 대졸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인터넷 사용자가 여전히 고학력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계소득은 200~299만원이 3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100~199만원 25.4%, 300~399만원

20.2%의 순으로 많았다.

인터넷 사용환경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컴퓨터 사용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이 25.2%, 6시간 이상이 22.8%로 매우 장시간인 것을 고려할 때 인터넷 사용시간이 긴 사용자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인터넷 사용빈도가 하루 한번 이상인 경우가 93.4%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컴퓨터 활용능력은 숙달된 편이라는 응답이 52.6%였으며, 초보는 아니지만 사용시 서툰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36.8%로 상당한 비율을 나타냈다. 초보수준이라는 응답은 4.4%로 매우 낮았다.

인터넷 시설환경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살

〈표 2〉 개인·가정환경 변인 및 인터넷사용환경 변인에 따른 인터넷 활용

\*  $p<0.05$ , \*\*  $p<0.01$ , \*\*\*  $p<0.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퍼본 주거환경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거주자가 52.6%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빌라/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거주자는 각각 19.0%, 18.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인터넷망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거주자들과 함께 이들은 개별적인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응답자의 상당부분이 인터넷 사용기간이 길고, 인터넷과 이메일을 매일 확인하는 정도로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가정의 기혼남녀의 특성으로 적용하기보다 인터넷 이용을 선도하는 집단

층의 특성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2. 개인·가정환경 변인 및 인터넷 사용환경 변인에 따른 인터넷 활용 정도의 차이

개인·가정환경변인 및 인터넷 사용환경 변인에 따라 정보검색, 인터넷쇼핑, 메일·메신저·채팅, 인터넷활용 의사결정, 인터넷활용 가사노동 등 5개 영역에서의 인터넷 활용 정도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 분산분석을 하였다.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 중 성별에 따른 인터넷 활용 정도의 차이는 정보검색, 인터넷 쇼핑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보검색, 인터넷 쇼핑 모두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이용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적어도 정보검색과 인터넷 쇼핑의 경우 여성들의 인터넷 활용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령에 따른 인터넷 활용 정도의 차이는 가사노동을 제외한 정보검색, 인터넷쇼핑, 메일·메신저·채팅, 인터넷 활용 의사결정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보검색의 경우 모든 연령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장 연령이 낮은 20-30세 집단이 가장 정보검색활용 정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정보활용률이 낮아졌다.

인터넷 쇼핑, 메일·메신저·채팅, 인터넷을 활용한 의사결정 모두 연령이 가장 낮은 20~29세 집단에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연령이 높은 50세 이상의 집단은 두 영역 모두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다.

직업에 따른 차이는 정보검색, 인터넷 쇼핑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보검색의 경우 추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무직 종사자와 전업주부 집단이 동일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육체노동자와 무직/기타 집단이 동일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검색의 필요성이 높을 수 있으며, 전업주부의 경우 정보검색활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검색,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수준의 경우 정보검색 활용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교 졸업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점을 보였으며, 대학원이상 집단과 고졸이하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교육수준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인터넷 정보검색에 대한 사용 요구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추측케 한다.

가계소득 및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인터넷 활용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 볼 때 개인·가정환경 변인 중 연령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며, 연령이 낮으며, 사무직과 전업주부 집단, 대학교졸업자 집단이 인터넷 활용이 활발한 집단으로 특징지을 수 있겠다.

인터넷 사용정도, 사용환경, 활용능력 등의 변인에 따른 인터넷 활용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컴퓨터총사용시간의 경우 정보검색, 인터넷쇼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보검색과 인터넷 쇼핑 모두 컴퓨터를 하루 4시간이상 사용하는 집단에서 가장 높은 활용점수를 보였으며, 사용시간이 감소할수록 활용정도도 낮아지는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인터넷사용경력은 정보검색, 인터넷쇼핑, 인터넷을 활용한 가사노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총사용시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용경력이 가장 긴 4년이상 집단에서 정보검색, 인터넷쇼핑, 인터넷 활용 가사노동 모두에서 가장 높은 활용점수를 보였으며, 사용경력이 낮아질수록 각 영역에서의 활용정도도 낮아졌다. 특히 정보검색과 가사노동의 경우 인터넷사용경력 각 집단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인터넷활용가사노동의 경우 인터넷사용경력과 정적인 방향의 관련성을 보여 줌으로써 인터넷 활용수준이 성숙해질수록 가사노동분담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활용능력에 따라서 정보검색, 인터넷쇼핑, 가사노동 영역에서의 활용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스스로 컴퓨터 활용에 숙달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컴퓨터 활용시 서툰감을 느끼는 경우에 비해 정보검색, 인터넷쇼핑, 가사노동 모두에서 높은 활용점수를 보였다.

인터넷사용환경의 경우 통계적인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인터넷 활용 영역은 없었다. 응답자 본인의 인터넷 사용시간 인지의 경우 정보검색, 인터넷쇼핑, 인터넷활용 가사노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터넷 활용 세 영역 모두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보통 또는 과다한 것으로 인지하는 집단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태도는 메일·메신저·채팅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보검색의 경우 인터넷 태도가 '상', '중', '하'인 집단 각각에 따라 활용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쇼핑의 경우는 인터넷 태도가 '상'인 집단이 '중', '하'

〈표 3〉 인터넷 사용환경에 따른 인터넷 활용

\* p<0.05, \*\* p<0.01, \*\*\* p<0.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인 집단에 비해 활용빈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영역의 결과를 볼 때 인터넷 태도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는 정보검색 활용정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지만 인터넷 쇼핑은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는 어느 경계점을 넘어서야 수행되는 인터넷 활용 영역임을 추측할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시간, 사용경력 등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활용정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인터넷에 대한 태도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인터넷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터넷 활용 촉진 요소로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개인·가정환경 변인 및 인터넷 사용환경 변인에 따른 효용성 인지, 부정적 인지의 차이

1) 효용성 인지 및 부정적 인지에 대한 요인분석

인터넷 활용에 따른 효용성 인지를 양적으로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16개 문항에 대해 아이겐 값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추출을 시도한 결과 3개의 요인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의 속성이 혼합된 특성을 보여, 4개의 요인산출을 지정하여 다시 분석하였다.<sup>1)</sup> 4개의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총분산은 62.45%였다.

요인의 명칭은 요인 1의 경우, 대인관계유지, 요

〈표 4〉 효용성 인지에 대한 요인분석

인 2는 인적자본개발, 요인 3은 과제수행, 요인 4는 관리활동이라 명명하였다.

인터넷 활용에 따른 부정적인지의 구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을 산출하였다. 아이겐 값 1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배리맥스 회전을 하였다.

요인 1은 시간사용불균형, 요인 2는 부적영향의 외현화, 요인 3은 부부관계 불만, 요인 4는 자녀양육 불안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개의 총 설명분산은 57.03%였다.

## 2) 효용성 인지 및 부정적 인지의 정도

효용성 인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산출된 4개의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적자원개발 요인과 관리활동 요인에서의 효용성 인지가 비슷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과제수행과 대인관계유지에서의 효용성 인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의 두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효용성을 낮게 인지하였다. 모든 항목의 평균은 2.05점으로 3점을 기준으로 할 때 중간 정도의 효용성 인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활용에 따른 부정적 인지의 경우는 요인 분석 결과 산출된 요인 중 자녀양육불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 2.37이었으며, 시간사용 불균형이 1.56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부부관계 불만은 가장 낮아 1.25였다. 전체적인 평균은 1.67점으로 인터넷 활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중간 이하의 수준을 나타냈다.

1) 요인분석시 산출하는 요인의 갯수는 일차적으로 통계적 인 분석결과에 따른다. 하지만 추출된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을 검토 후 연구자가 해당 연구 영역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산출요인 갯수를 지정할 수 있다(최용석, 정광모, 2001, 79쪽 참고).

〈표 5〉 부정적인지에 대한 요인분석

〈표 6〉 효용성 인지 및 부정적 인지 평균

4. 제 변인의 효용성 인지 및 부정적 인지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에 제시된 독립변인들이 인터넷 활용에 따른 효용성 인지 및 부정적 인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피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중회귀 분석의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본 결과 사무직 가변수와 전업주부 가변수의 VIF값이 각각 4.36, 4.26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10을 넘지 않는 수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독립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응답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2로 처리하였다. 직업변인은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무직/기타'를 기준변수로 하여 사무직 가변수는 '사무직'에 1점을 기타 다른 직업에 0점을 주었다. 육체노동직 가변수는 '육체노동직'에 1점, 다른 직업에 0점을 주었다.

전업주부 가변수는 '전업주부'에 1점, 다른 직업에 0점을 주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을 기준변수로 하여 인터넷 설치아파트 가변수는 '설치아파트'를 1점, 기타 주거형태를 0점을 주었다. 인터넷미설치아파트 가변수는 '미설치아파트'를 1점, 기타 주거형태를 0점을 주었다.

교육수준은 각 항목을 교육연한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고등학교이하'는 12년, '대학교'는 16년, '대학원이상'은 18년으로 처리하였다. 가계소득은 '199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200-299만원'인 경우 250만원, '300만원 이상'인 경우 350만원으로 처리하였다.

컴퓨터 사용시간은 '1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2시간'은 90분, '3시간', 150분 등 분으로 환산하였다. 인터넷 사용시간은 '6개월~1년미만'인 경우 3개월에서부터 '1년'은 12개월, '2년', 24개월 등으로 하였으며 '6년이상'은 72개월로 하였다.

개인·가정환경변인, 인터넷사용환경변인, 인터넷 활용에 관한 정보검색, 인터넷쇼핑, 메일·메신저·채팅, 인터넷활용의사결정, 인터넷활용가사노동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효용성 인지의 4개 요인과 효용성 인지 전항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유지의 경우 정보검색( $\beta = 0.27, p<0.05$ ), 인터넷활용가사노동( $\beta = 0.19, p<0.05$ ), 인터넷 미설치가변수( $\beta = -0.13, p<0.05$ ), 육체노동직가변수( $\beta = -0.12, p<0.05$ )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검색을 자주 사용할수록, 인터넷활용가사노동을 자주 수행할수록, 인터넷 미설치아파트가 아닌 경우, 육체노동직이 아닌 경우 인터넷 활용이 대인관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적자원개발 효용성 인지는 정보검색( $\beta = 0.27, p<0.001$ ), 인터넷활용가사노동( $\beta = 0.19, p<0.001$ ), 인터넷활용의사결정( $\beta = 0.16, p<0.001$ ), 인터넷에 대한 태도( $\beta = 0.12, p<0.01$ ), 가계소득( $\beta = 0.10, p<0.05$ ), 컴퓨터활용능력수준( $\beta = 0.10, p<0.05$ ) 등의 변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검

색을 자주 할수록, 인터넷활용가사노동을 자주 수행할수록, 의사결정시 인터넷 활용을 자주할수록, 인터넷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컴퓨터활용능력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활용이 인적자원개발 효용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과제수행 효용성 인지에는 정보검색( $\beta = 0.26, p<0.001$ ), 인터넷활용가사노동( $\beta = 0.17, p<0.001$ ), 인터넷활용의사결정( $\beta = 0.16, p<0.05$ ) 등의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검색을 자주 할수록, 인터넷활용가사노동을 자주 수행할수록, 인터넷활용의사결정을 자주 할수록 인터넷 활용이 과제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해석된다.

관리활동은 인터넷활용가사노동( $\beta = 0.22, p<0.001$ ), 정보검색( $\beta = 0.20, p<0.001$ ), 인터넷에 대한 태도( $\beta = 0.17, p<0.001$ ), 인터넷쇼핑( $\beta = 0.14, p<0.01$ ), 인터넷활용의사결정( $\beta = 0.24, p<0.05$ )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활용가사노동을 자주 수행할수록, 정보검색을 자주 이용할수록, 인터넷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인터넷쇼핑을 자주 이용할수록, 인터넷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자주 할수록 인터넷 활용이 관리활동에 효용성을 주는 것으로 인지한다고 해석된다.

인터넷 활용에 따른 효용성 인지의 경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정보검색( $\beta = 0.30, p<0.05$ ), 인터넷 활용 가사노동( $\beta = 0.24, p<0.05$ ), 인터넷 활용 의사결정( $\beta = 0.15, p<0.05$ ), 인터넷에 대한 태도( $\beta = 0.09, p<0.05$ )으로 나타났다. 유의하게 나타난 네개 변인의 총설명력은 35%였다. 이는 인터넷에서의 정보검색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을 활용한 가사노동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을 활용한 의사결정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효용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여러 영역에서의 인터넷 활용 정도가 효용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단순한 인터넷 사용량을 측정하는 변인들은 효용성 인지에 영향을

〈표 7〉 효용성 인지에 대한 중회귀분석

\*  $p<0.05$ , \*\*  $p<0.01$ , \*\*\*  $p<0.001$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활용에 따른 부정적인지의 4개 요인과 부정적인지 전항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사용불균형의 경우 인터넷사용시간에 대한 인지( $\beta = 0.32, p<0.001$ )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계소득( $\beta = -0.16, p<0.01$ ), 인터넷쇼핑( $\beta = 0.14, p<0.01$ ), 인터넷사용환경인지( $\beta = -0.13, p<0.01$ ), 정보검색( $\beta = 0.13, p<0.05$ ), 컴퓨터활용능력수준( $\beta = -0.11, p<0.50$ )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사용시간이 과다하다고 인지할수록,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인터넷쇼핑을 자주 이용할수록, 인터넷사용환경이 낮다고 인지할수록, 정보검색을 자주 할수록, 컴퓨

터활용능력수준이 낮을수록 시간사용불균형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컴퓨터활용능력수준이 낮을수록 시간사용의 균형이 깨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활용능력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활용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부정적영향의 외현은 인터넷쇼핑( $\beta = 0.25, p<0.001$ ), 인터넷사용환경인지( $\beta = -0.18, p<0.001$ ), 인터넷사용시간인지( $\beta = 0.13, p<0.01$ ), 가계소득( $\beta = -0.09, p<0.05$ ), 정보검색( $\beta = 0.12, p<0.05$ )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쇼핑을 자주 이용할수록, 인터넷사용환경수준이 낮다고 인지할수록, 인터넷사용시간이 과다하다고 인지할수록,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정보검색을 자주 이용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외현화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인터넷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사용환경이나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부정적 영향을 더욱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사용자의 조절 및 통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보다 직접적인 예측변인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사용시간인지는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영향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갈등은 인터넷사용시간인지( $\beta = 0.15, p<0.01$ ), 인터넷사용환경인지( $\beta = -0.13, p<0.01$ ), 인터넷활용가사노동( $\beta = -0.11, p<0.05$ )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사용시간이 과다하다

고 인지할수록, 인터넷사용환경이 낮다고 인지할수록, 인터넷을 활용한 가사노동이 낮을수록 부부관계에서의 갈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넷사용시간이 증가하더라도 인터넷을 활용한 가사노동을 증가시킨다면 부부관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녀양육불안은 인터넷사용환경인지( $\beta = -0.20, p<0.001$ ) 및 정보검색( $\beta = 0.12, p<0.05$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사용환경이 낮다고 인지할수록, 정보검색을 자주 할수록 자녀양육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검색을 자주 활용하는 인터넷 사용자일수록 불량정보에 접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터넷이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

#### 〈표 8〉 부정적인지에 대한 중회귀분석

\*  $p<0.05$ , \*\*  $p<0.01$ , \*\*\*  $p<0.001$

정적 영향력을 더욱 잘 인식하게 만들 것으로 추론된다.

부정적인지 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터넷사용시간 인지( $\beta = 0.23, p<0.01$ ), 인터넷 사용환경인지( $\beta = -0.21, p<0.01$ ), 인터넷쇼핑( $\beta = 0.20, p<0.01$ ), 정보검색( $\beta = 0.16, p<0.1$ ), 가계소득( $\beta = -0.12, p<0.5$ )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변인의 인터넷 활용에 따른 불만족 설명력은 21%였다. 이는 본인의 인터넷사용시간을 과다한 것으로 인지할수록, 인터넷사용환경이 낫다고 인지할수록, 인터넷쇼핑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정보검색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인터넷 활용에 따른 불만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가정경영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 인지 수준을 낮추기 위한 효율적 인터넷 활용 관리는 연령에 따라 상이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낮은 연령층에서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인터넷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 활용을 고려한 시간사용관리의 문제, 과다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관리 및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관리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연령이 높은 성인층을 위해서는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적합한 콘텐츠 개발 등이 요구된다.

둘째, 직업 및 교육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의 차이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활용의 격차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구매력이나 소비자지식과 같은 가정생활의 한정된 범위에서 나타나는 불리한 집단(disadvantaged group)으로서의 지위보다 더 큰 부정적 영향력을 갖는다. 정보가 모든 사회, 경제, 문화적 흐름을 주도하는 사회에서 정보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정보자원의 혜택은 가정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제한된다.

따라서 가정경영 영역에서는 정보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정보활용의 중요성 인식, 정보활용이 가능토록 실질적인 기능을 습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적자원개발의 수단으로 인터넷의 효용성이 높게 인지되는 것은 이동성의 제한을 받는 전업주부, 장애자, 노인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공한다. 인터넷은 모성역할이나 가정관리자로서의 역할수행으로 인해, 또는 신체적 장애나 노화로 인한 장소 이동의 제한을 받는 집단을 위해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단 기술적 측면에서 인터넷의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인식되고 있지만 가정경영적 차원에서는 실천 방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즉, 이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들의 이동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다. 가능성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활발하게 이용함으로써 인적자원의 개발과 이를 통한 복지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인터넷의 부정적 인지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가정경영적 차원에서의 관리전략에 대한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한 효율적 통제 방법, 인터넷 설치 장소에 대한 고려, 불량 콘텐츠 접촉 차단 등에 대해 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건전한 인터넷 활용 방안, 그리고 관리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 이 두 측면에서의 접근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 활용에 따른 효용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정보검색, 인터넷활용가사노동, 인터넷 활용 의사결정 등 여러 영역에서의 인터넷 활용 정도가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상대적 중요성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정보격차의 우려를 감소시켜준다. 컴퓨터의 기술수준이 불과 몇 개월을 단위로 향상되고 있지만, 이와 비례적으로 컴퓨터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접근성이 제공되므로써 정보격차의 문제는 초기의 우려보다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효용성 인지는 인터넷 사용시간, 사용경력,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과 같은 단순한 인터넷 사용량, 사용능력을 측정하는 변인들보다는 인터넷을 생활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새로운 자원활용방식'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가정경영학에서 가족원들의 일상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터넷이라는 한 영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학문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여섯째, 인터넷 활용에 따른 부정적 인지의 경우, 인터넷 사용시간의 과다, 인터넷사용환경에 대한 인지 등이 중요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난다. 인터넷 활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사용시간에 대한 자기관리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변화된 소비생활양식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터넷사용시간에 대한 인지는 시간사용불균형 요인 뿐만 아니라 부정영향외현, 부부관계갈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쇼핑은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효용성 인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역에서의 부정적 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시간에 대한 관리, 사용환경에 대한 고려사항, 온라인에서의 소비생활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결국 인터넷 효용성 인지 및 부정적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사회경제적인 계층에 따른 인터넷에의 접근성의 문제보다는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측면을 어떻게 관리함으로써 효용성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접근이 가정경영적 차

원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참고문헌

- 김기범, 김미희, 최상진(2001). 정서적 고독감과 인터넷 효능감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미치는 영향: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39-57.
- 김선우(2002).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소외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세영(1999). 통신중독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재휘, 홍재욱(2000). 인터넷 이용자들의 동기와 사이트 이용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2), 25-46.
- 박미석, 이유리(2000). 주부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유용성 인지정도와 활용정도. 대한가정학회지, 38(4), 163-176.
- 박부진, 이해영(2000).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특성과 가족생활의 변화. 가족과 문화, 12(2), 99-126.
- 백종화, 박성연(2002).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실태 및 인터넷 이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35-145.
- 사이버소비자센터(2003). 2002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분석결과. 한국소비자보호원.
- 신종국(1998). 정보화 진행이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연구.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회. 경영·경제연구, 17(1), 117-136.
- 심수민(1999). PC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태도와 부모자녀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양찬일(1996). 인터넷의 확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수용자의 저항성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화저널, 3(4).
- 이동원(1998). 전자상거래 활용실태 및 소비자만족, 불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수진, 이승신(2001). 인터넷 소비자정보 요구도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9(12), 159-175.
- 이현아(2001).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존 실리 브라운, 폴 두기드 저, 이진우 역(2001). *비트에서 인간으로*. 거듭.
- 존 하겔 3세, 아더 암스트롱 저, 한영주 옮김(1999). *가상 사회와 전자상거래*. 세종서적.
- 차성란(2002). 정보사회와 가족자원경영학의 학문적 지향. *대안가정학회지*, 40(5), 211-224.
- 차성란, 문숙재, 정영금(2003). 가정에서의 인터넷 활용과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연구보고서.
- 최용석, 정광모(2001). 실무자를 위한 MINITAB 다변량 분석. 이레테크.
- 패트리샤 윌리스 저, 황상민 역(2001). *인터넷 심리학*. 에코리브르.
- 한국소비자보호원(2003). 2002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백서.
-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2). 한국인터넷통계집.
- 한세익(1998). 가정정보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 - 이용자 지향적 가정정보화를 지향하며.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3, 166-203.
- 홍성욱(2002).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 Boyce, A. & Rainie, L. (2002). *Online Job Hunting*.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_\_\_\_\_ (2002). *The Growth in Online House Hunting*.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Fox, S., & Rainie, L. (2000). *The Online Health Care Revolution: How the Web Helps Americans Take Better Care of Themselves*.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Online Life Report.
- Fox, S., Rainie, L., Horrigan, J. Lenhart, A., Spunner, T., & Carter, C. (2000). *Trust and Privacy Online: Why Americans Want to Rewrite the Rules*. The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Fox, Susannah. (2001). *Wired Seniors: A Fervent Few, Inspired by Family Ties*.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Gattiker, U. E., Perlusz, S., & Bohmann, K. (2000). Using the Internet for B2B Activities: A review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Internet Research : Electronic Networking Applications and Polish*, 10, 126-140.
- Horrigan. (2000). *New Internet Users: What They Do Online, What They Don't, and Implications for the 'Net's Future*.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Kommers, N. & Rainie, L. (2002). *Use of the Internet at Major Life Moments*.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Jones, Steve. (2003). *Let the Games Begin: Gaming Technology and Entertainment among College students*.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Larsen, Elena. (2001). *Cyber Faith: How Americans Pursue Religion Online*.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Lenhart A., Rainie, L. & Lewis O. (2001). *Teenage Life Online*.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Rainie L. & Kobut A. (2000). *Tracking Online Life: How Women Use the Internet to Cultivate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Friends*.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http://www.apa.org/releases/internet.html>.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nline.
- <http://www.kado.or.kr>. 한국정보진흥원 일반인 대상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프로그램.
- <http://www.nso.go.kr>. 통계청.
- <http://www.seri.org>.
- (2003년 9월 20일 접수, 2004년 3월 22일 채택)